

“관광·농업·산림분야 신성장동력 육성하겠다”

김순호 구례군수, 내년 군정 제시

내년 예산안 올해 대비 0.96% ↑
치유산업육성·지역특화농업 선도

구례군이 관광이나 산림 등 치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0.96%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구례군에 따르면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5일 열린 제30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군정 운영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군은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0.96% 증가한 총 3487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이 큰 폭의 지방교부세 감소 등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어려운 여건 속에 편성되었음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먼저 올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며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도 굼직한 민간 자본 투자유치 협약 등을 통해 미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그동안 준비해 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선보이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김 군수는 2024년도 6대 군정 운영 방향으로 △지역경제의 항구적 성장 기반 구축 △남도 제일의 생태관광 휴양도시로 도약 △휴과 농업인을 살리는 미래 농업 선도 △춤춤하고 두터운 복지안정망 구축 △매력 넘치는 젊은 정주 도시 건설 △구례가 주도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먼저, 구례군의 지리산과 섬진강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치유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치유병원과 향암 농식품 제조공장을 조성하는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 캠퍼스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생태관광 휴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산 케이볼카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섬진강 통합관광벨트 사업으로 그린케이블과 레인보우 워크를 조성해 관광 구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지리산 정원과 온천지구에는 숲속수목가옥, 골프장, 온천호텔 등 휴양시설을 확충해 구례 관광산업의 중흥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농업 분야에서는 지역특화 전략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흙 살리기’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토양 정밀조사와 벗짚 환원 등 유기물 투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팜 보급, 우리 밀 특화 산업 육성, 시설원에 작물 지원 등 농업 전반에 걸쳐 미래 기술과 6차 산업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넷째, 복지 분야는 긴축예산 편성 기조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망은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친화 도시 인증, 평생학습허브센터 조성, 행복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5일 열린 제30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군정 운영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 구례군 제공

가족복합센터 건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생활 기반(SOC)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다섯째, 정주 도시 건설을 위해 청년인구 유입과 도시 재설계로 도심 활력을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새해에는 통합어울림센터로 구례읍사무소를 이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 곳곳에 산재한 공공기관들을 군청 주변으로 이전 집적화하고, 복합광장과 백련천 문화거리 등 도시 기반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협약 사업으로 마을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서시교 개축 공사와 국도 18·19호선 확포장 등 국가사업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섬진강·지리산 권역 자치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등 ESG 행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소통을 강화하고 향토 지식재산의 산업화 지역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공직자의 진취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금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구례의 미래 모습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군민과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본예산은 구례군의회 임시회가 종료되는 이달 18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해남 갈두마을은 ‘축제’ 10년만에 신생아 탄생

10년만에 딸깍 해남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을 곳곳에는 아이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걸렸다.

해남군 북일면 갈두마을에 이형민·심은정 부부의 둘째아들이 지난달 22일 태어났다. 갈두마을에 10년전 태어난 아이도 이형민·심은정 부부의 첫째 아들이다. 무려 10년만에 들려온 아이탄생의 기쁨은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북일면 전체가 함께하는 경사이기도 하다. 북일면은 지난 2년간 아이 출생이 없어 이번 아이탄생이 더욱 의미있는 소식이 되고 있다.

명원관 군수도 7일 출산가정을 방문해 쇠고기, 미역 등 출산 축하용품을 전달하고 축하의 기쁨을 함께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어르신과 함께하는 정성치안 맞춤형 장성경찰-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



장성경찰(서장 전병현)은 7일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에서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지회장 반강진)와 함께 ‘어르신과 함께하는 정성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공유와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 지원활동을 하고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는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에서 각종 프로그램 진행 시 교통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어르신 교통안전 리더 육성 활동을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관내 교통사망사고 3건 중 2건이 80세 이상, 올 교통사망사고 7건 중 6건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병현 장성경찰서장은 “운전자의 교통안전 실천 문화가 중요하며 교통사고 예방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정성치안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장성=유병현 기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출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할 조직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여수문화회에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섬 관련 단체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에서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향후 추진방향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섬박람회 개최시기 확정과 민간위원장 선출 등도 진행된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읍 진도지구에서 열린다. 박람회에는 총 30개국 이 참여하고 관람객 30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안부는 세계섬박람회 개최가 섬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민에게 섬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897 개항문화거리

목포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원도심 거리가 활기를 더해 가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 주도로 시행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도시재생대학과 마을학교라는 두 가지 테마로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항문화거리 활성화를 이끌었다.

시재생대학은 주민 스스로 도시의 현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8차례 진행됐다.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협의체 구축, 협동조합의 이해와 운영, 도시재생사업 및 가로경관 디자인 이해,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마을해설사 기초교육, 로컬브랜드와 지역 상권 이해 등이다.

마을학교는 도시재생대학의 이론적 교육에 더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교육으로 구성했는데, 홍보영상 제작 방법, 목공예 및 원예 기술 등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목포시 지역역량강화 교육은 지난 5년간 11개 과정을 개설해 22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그 결과 사업지역 내 창업 건수 증가와 함께 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주민 간의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성과를 보였다.

목포시는 2024년 1월 마을기록자 양성을 위한 마지막 교육과정인 4기 마을학교를 개강하고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함평군, 안전보안관 캠페인

7일 함평군이 천치전통시장 일원에서 안전보안관 캠페인을 펼쳤다.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군 직원들과 안전 보안관이 참여했다. 함평군 제공

광양시, 2025년까지 ‘도시바람길숲’ 조성

광양 도시바람길숲 용역 보고회 내년 50억 투자 ‘휴먼시티 실현’

광양시는 6일 정인화 광양시장과 전라남도 관계 공무원, 도심숲가꾸기위원장, 전문가 등을 포함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도시바람길숲 조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 조성 전·후 열환경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와 2024년 이후 사업 대상지 및 기본구상(안)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보고회 주요 내용은 △2023년도 대표

사업대상지 3개소에 대한 열환경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한 궁극적인 결과 도출로 열환경 개선 기대 △건강한 수목 생육 기반 확충 △학교와 주거지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 사업대상지 추가 선정 △광양의 향토수종 반영 등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2023년 완료된 지역을 전문가들과 방문해 추가로 보완할 사항들이 있는지 충분히 점검하고 2024년 이후 사업은 더욱 완벽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바람길숲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민선

8기 추진 전략인 ‘그린인프라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휴먼시티’ 실현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광양시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2023년 총사업비 90억원으로 와우근린공원 등 7개소 중 5개소를 완료했으며, 2개소는 동해피해 예방을 위해 이듬해 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중마중앙로와 함만대로 등 5개소를 대상으로 1월 행정절차 완료 후 식재 적기인 봄철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광양=안영준 기자